

# 서민 두 번 울리는 불법사채... “솜방망이 처벌 근절돼야”

## 불법사금융 토론회

피해신고 증가...작년 3000건 육박  
형사사건도 집행유예·벌금형 그쳐

규제 빈틈 많고 영업역지력도 미흡  
대부업·불법사금융 엄격히 구분해  
‘대부업자’ 공통 명칭 개선하고 규제

최근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  
어나면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  
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  
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  
서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이 제도권 금융 내에서 마지막으로 문  
을 두드리게 되는 곳인 대부회사마저  
신규대출을 축소하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  
이라며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불법사  
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  
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박덕배 국민대학교 교수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

24.8%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법정 최  
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서민들  
의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  
다”며 “합법적 대출 규모와 맞먹는 수준  
의 불법사채를 막기 위한 실질적 규제  
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나 학  
계에서 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  
해 불법사채를 근절하는 규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시장 규모는 늘어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결제업이 2015년과 2016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추정했을 때,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 불법사채시장 이용자  
는 약 30만~40만 명, 이용총액은 약 10  
조~2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신고도 급격히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불법사채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2969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배 국민대학교 교수는 “불법사  
채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 노출 등의 두  
려움으로 이를 신고하지 못하는 차주의  
속성을 고려할 경우 실제적으로 불법사  
채 이용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  
다”며 “이에 따른 실제 피해 또한 추정  
치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사채업을 운영하는 등 대부업법을 위반  
한 형사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또는 벌  
금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지 않  
다”며 “등록 대부업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영업을 하다가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불법사  
채에 대한 영업 역지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불법사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엄격히 구분해

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교수는 “2000년대 들어 등록 대부  
업이 급성장하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이  
소홀했던 민간 서민금융을 대신했음에  
도 불구하고, 대국민 홍보가 미흡해 적  
법하게 영업하는 대부업자와 불법사채  
업자가 모두 ‘대부업자’로 불리며 고금  
리·불법추심·과장광고 등의 부정적인  
인식만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법률상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용어를 ‘불법사금융업  
자’ 또는 ‘불법사채업자’로 변경하고,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금융,  
생활금융, 민생금융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불법사채업자의 대  
부행위에 대해서는 상사이자율(연  
6%)을 적용하거나 이자를 인정하지 않  
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불법사  
채 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 “韓 통화정책 환경은 선진국과 달라”

### 금리동결 주장한 임지원 금통위원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환경은 주요 선진  
국과 많이 다르다”며 매과적(통화긴축  
선호) 성향을 드러냈다. 선진국은 통화  
가 경기에 역행해 움직여 통화정책의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에 선제적, 적극  
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우리나  
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동안 임지원 위원은 통화정책과 관  
련해 중립 성향으로 분류됐었다. 하지  
만 지난달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1.25%로 내릴 당시 이  
일형 금통위원과 함께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을 제시하며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바  
있다. 임 위원이 다시 한 번 매과적 성향  
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  
은 낮아질 전망이다.

임 위원은 1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  
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의  
작동과정이 개별 경제의 금융·경제 구조  
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선택이 주요 선진  
국과 어느 정도 차별화되는 것은 결코 이  
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에 따르면 미 달러, 일본 엔화  
등 선진국 통화는 안전통화로 여겨져  
글로벌 경기흐름이 악화될 때 통화 가치  
가 상승하는 경기역행적 움직임을 보인  
다. 반면 신흥국 통화는 경기순행  
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경기 하방의 위  
험을 완화해 통화정책의 경기안정화 기  
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임 위원은 “만일 특정 국가의 통화가  
치가 글로벌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서  
하락할 경우 그 자체가 경기에 대한 하  
방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 통화정  
책 완화기조 전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 달러화와 같이 통화 가치가



임지원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1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기역행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통화정  
책의 경기안정화 효과가 일부 상쇄된  
다”며 “다른 모든 여건이 동일하다면 통  
화 가치가 역행적으로 움직이는 국가의  
통화정책이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이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의 흐름을 중심으로 형  
성되는 경향이 많았다”며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환경이 주요 선진국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  
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대외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  
우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금융  
상황이 간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만큼  
금융안정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임 위원은 “만일 특정 신흥국의 대외  
건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될 경우  
대외부채 상환 부담에 대한 우려와 자  
본유출로 통화 가치 하락 정도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전반적인 국  
내 금융상황을 간혹적으로 변화시키면  
서 실물경제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 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안정성  
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아  
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  
했다.

/김희주 기자

## 증권가, 아시아나 품은 현산 목표가 낮춰

(HDC현대산업개발)

목표가 하향 조정 등 주가 뒷걸음  
증장기적으로는 ‘긍정적’ 관측도  
하나금투 연구원 “불확실성 존재”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증권업계는 “당분간 수익  
성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HDC  
현산의 목표가를 잇따라 하향조정할 태  
세다. HDC현산의 기업 가치가 크게 변  
하는 시기인 만큼 관망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3일 증권업계는 HDC현산이 아시아  
나항공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후 ‘우려감’을 드러낸 투자보고서를 냈  
다. 이날 HDC현산 주가 역시 하락했다.

증권업계는 주가 눈높이를 낮췄다.  
DB금융투자는 HDC현산의 12개월 목  
표가를 기존 3만8000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했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은 4  
만6000원에서 4만원으로 내렸다. 메리  
츠증권은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하며 목표주가 3만7000  
원을 제시했다.

목표주가 낮추지 않았지만 주가가  
당분간 약세에 접어들 것인 전망도  
나왔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아시아나 인수과정에서의 상각이나 대  
손 등의 추가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면서 “주가는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해  
약세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당분간 HDC  
현산의 적정가 산출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남아 있고, 때문에 HDC현산의  
현금자산이 어떻게 변할 지 예상할 수  
없어서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계열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의  
지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현행 공정  
거래법상 지주사 손자회사는 ‘손자회사  
의 자회사’인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  
유해야 한다. HDC현산은 아시아나의  
자회사를 제 3자 매각하거나, HDC현  
산이 잔여 지분을 시장에서 모두 사들  
여야 한다.

HDC현산의 적정한 가치평가에도  
어려움이 있다. 채 연구원은 “이번 인수  
로 인해 부동산 개발업을 비즈니스모델  
(BM)로 하는 HDC현산에 대한 실적추  
정과 밸류에이션(가치)이 사실상 큰 의  
미 없어졌다”면서 “이제는 자본 2조,  
자산 4조5000억의 부동산 기업이 아니

라 자산 11조, 부채 9조6000억원의 아시  
아나를 연결로 잡는 ‘항공산업+부동산  
업’이라는 복합기업으로 거듭났기 때  
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HDC현산은 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개  
발사업 등으로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 인수로 보유현금의 상당  
부분이 인수 자금을 투입돼 기존 본업  
에서의 투자 계획은 조정이 필요할 것”  
이라며 “정도에 따라 기업 가치와 실적  
변화가 클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증장기적으로 긍  
정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HD  
C현산의 의지도 강력한 데다 아시아나  
항공의 정상화에 산업은행 등 정부 차  
원의 의지도 높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대표적인 규제산업  
으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아시아나  
항공 정상화에 대한 정부 측 기대가 높  
은 상황”이라며 “HDC그룹과 미래에  
셋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아시아나항공  
이 빠르게 정상화되면 HDC현산의 기  
업 가치는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9월 시중통화량 7.6% ↑... 42개월 만에 최대

한은 7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

지난 9월 시중 통화량 증가세가 대폭  
확대됐다. 증가율이 7%대를 기록한 것  
은 2016년 12월(7.5%)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9년 9월  
시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지  
난 9월 광의통화(M2)는 2853조3000억  
원(평잔·원계열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

비 7.6% 증가했다.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증가율  
은 2016년 3월(7.8%) 이후 3년 6개월 만  
에 가장 높았다.

M2는 언제나 현금화가 가능한 자금  
으로 현금통화를 비롯해 요구불예금,  
수입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  
(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 상품이

포함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계정조정계열 기준으로는 2852조원  
으로 전년 대비 0.7% 늘며 8월(0.9%)보  
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9조8000억원 증가했다. 수익증권도 4  
조6000억원 늘었다. 머니마켓펀드(M  
MF)는 6조원 감소했다. 주체별로는 가  
계 및 비영리단체가 10조4000억원, 기  
업이 5조7000억원, 기타금융기관이 2조  
원, 기타부분은 4000억원 증가했다.

/김희주 기자 hj89@